



5·18 37주년 ...옛 도청 앞 분수대 가동 5·18광주민중항쟁의 대표 사적지인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가 2일 본격 가동돼 화려한 LED 수중조명을 받으며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다. 광주시 동구는 이날부터 오는 10월말까지 분수대를 가동한다. 지름 19.3m, 높이 2.32m인 옛 전남도청 분수대는 1971년 설치됐으며, 5·18광주민중항쟁 사적지 27곳 가운데 유일하게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선 공약 반영은 됐지만...실천이 관건

<광주·전남>

㉠ '선택 2017' 대선 D-6

제19대 대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이후 당선자의 광주·전남 공약 실천 의지가 주목된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광주시와 전남도가 건의한 대부분의 공약 과제를 채택했지만, 다음 정부에서 이들 공약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예산 반영 등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발굴해 건의한 대부분의 공약 과제를 수용했다.

광주시는 양 당의 대선공약 중 미세먼지 연구소 설립 등 공기업산업 육성이 제외되기는 했지만, 당면 현안 사업과 4차 산업을 대비한 미래먹거리 사업 등이 공약이 포함되면서 만족할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밸리 조성과 한전 공대 설립,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및 부품단지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군 공항 이전, 인공지능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

민주당·국민의당 '에너지밸리' 등 시·도 건의 사업 대부분 채택

이명박·박근혜 정부 미이행 트라우마...예산 반영 현실화 돼야

성 등 광주 미래발전을 위한 세부 사업들이 공약으로 반영됐다.

전남도도 튜닝산업과 연계한 고성능 슈퍼카 육성과 차세대 국가우주항공산업 거점 육성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공약에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해양관광과 농생명산업의 선도도시 육성, 서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KTX 무안 국제공항 경유 및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 등 주요 현안사업과 전남 미래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고무적인 반응이다.

다만, 양 당의 광주·전남 대선 공약 중 경전선 철도와 목포와 새만금을 잇는 서해안 철도 건설 등 대부분의 SOC 사업이 민주당 공약에서 빠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대선 공약에 주요 사업들이 모두 포함된 만큼 대선 이후 다음 정부에서 곧바로

사업 추진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보수정권에서 광주·전남 대선 공약 중 단 한 건도 완료된 사업이 없을 정도로 소외와 홀대를 받은 점이 '트라우마'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서 광주·전남지역 대선 공약 25개(광주 14개·전남 11개) 가운데 완료된 공약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 중 자신의 주요 공약이었던 '4대 강 살리기' 사업 중 하

나인 영산강 살리기 단 한건만 완료됐을 뿐이다.

김종호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시 미래 먹거리 사업과 당면 과제 등이 대부분 공약에 포함됐지만, 무엇보다 공약 실천 의지다"면서 "다음 정부에서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등이 이뤄져야만 공약 실천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금주 전남도 기획조정실장도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전남도가 제안한 대선 공약 대부분을 채택했다"면서 "하지만, 다음 정부에서 이 많은 대선 공약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소풍 ▶7면

청년이 미래-해찬나래 심민호 ▶18면

양현종·나지원 타이거즈 역사 쓴다 ▶20면

조개진 바른정당 보수 재결집하나

13명 집단탈당 "홍준표 지지"

범보수 진영의 '이합집산' 움직임이 5·9 대선을 불과 1주일 앞두고 큰 변수로 떠올랐다. <관련기사 2·3·4·5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독주체제를 깨기 위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경쟁적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상황에서 바른정당(義) 집단탈당 사태가 발생하면서 막판 대선 판도의 유동성이 커진 것이다.

바른정당 비유승민계 의원 13명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수 대통합을 요구하는 국민의 염원을 외면할 수 없다"며 탈당을 선언하고 자유한국당 복당 이후 홍준표 후보 지지를 공식화했다.

이들은 이어 "많은 국민들이 보수의 분열은 있을 수 없으며 친북 좌파의 집권을 막기 위해 보수는 대동단결해야 한다는 준엄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에 유승민 후보에게 보수 후보 단일화를 설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단일화 무산을 탈당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나뉜 범보수 진영에서 보수 적통의 무게추가 홍 후보 쪽으로 쏠리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유 후보가 대선완주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보수 진영은 분열 속에서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 명분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역학구도에 따라 각 정당은 바른정당의 집단 탈당 사태가 대선정국에 미칠 파급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홍 후보 측은 지지를 상생세에 탄력을 불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안 후보에 오차범위내 또는 오차범위 밖 근처에서 안 후보를 추격중인 홍 후보 측은 문 후보와의 양강구도 형성을 위한 절호의 계기를 확실히 마련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국정실패세력'의 재결집에 불과하다며 맹비난했지만 대선정국에 불려온 파장에 촉각을 세우며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과 만나 대선 완주는 물론 독자노선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과 자유한국당 입당 작업이 마무리되면 바른정당 소속 의원은 비교섭단체 수준인 18명으로 줄고, 홍준표 후보가 속한 한국당은 107명으로 늘어났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일보 대선 투표 캠페인 ... #나는_투표한다 왜냐하면

"실천해야 세상은 움직이니깐요"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

보해양조 임지선(32) 대표는 67년 전통의 주류기업 보해양조를 이끌고 있다. 젊고 참신한 감각으로 혁신을 주도하며 부러더 소다, 보해 골드 등을 출시해 보수적인 주류업계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일자리 창출, 장학사업 등 지역과 상생하며 '100년 기업 보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에 힘쓰는 젊은 CEO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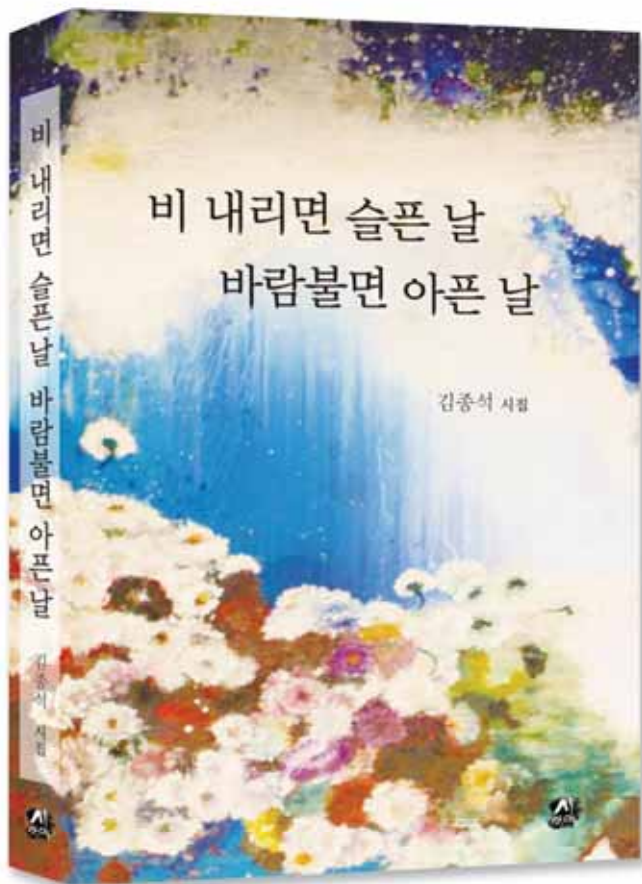
임 대표는 "실천해야 세상은 움직이니깐요" 힘주어 말하며 광주·전남시민들에게 투표에 동참해줄 것을 강조했다. 임 대표는 "더 좋은 세상은 말로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를 행동하고 실천해야 이룰 수 있다"며 "국민들이 촛불로 일구 낸 귀중한 선거인만큼 직접 참여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과정에 동참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비 내리면 슬픈 날, 바람불면 아픈 날

사랑과 이별의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슬픔, 고통, 죽음, 이별, 후회, 반성의 시편들과 함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

장미의 외출중에서

김종석 시인의 시 속에서 내 젊은 날의 방향과 열정을 만난다. 시인은 지금도 '장미의 외출'을 꿈꾸며, '눈멀고 귀 멀어도, 나 거기서 죽겠' ('사랑했었네')라는 순수한 영혼을 만나고 있다. 또한 '밤이면 내 가슴에 별' ('별들은 내 발걸음 함께 하며')을 꽃피우며 '천상에 들려오는 노래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 ('별이 비워둔 곳을 향해')하는 어린 천사를 만난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피어있는' ('사막에 피어있는 장미꽃 한 송이') 장미꽃 한송이! 그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다. '그녀가 나를 향해 달려왔던' ('마다가 달려온다') '우리네 젊었던 옛 시절' ('나목')이 스르린처럼 지나간다. 시의 행간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움을, 두근거리는 설렘을 되찾게 해준 김종석 시인을 축하한다.

- 이정호(영화감독, 한국영상위원회 위원장)

조국의 산천을 떠나 먼먼 이국땅에서 모국어로 시를 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시심(詩心)의 바탕을 유지하면서 인생과 사랑과 대자연의 풍경을 자기화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본연의 마음을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이기도 하다. 김종석 시인의 이번 시집은 파란만장했던 지난 한 생을 지나오는 동안 누구보다도 '가슴 속 통증'의 세월을 보내었기에, '평생 한 여인만을 사랑'하며 살았기에, 인생이란 이름의 '슬픈 사람'을 시편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그는 '영원히 바람이고 싶어했던 영혼'을 지닌 사람이다. 그러기에 그는 오늘도 '밤마다 뒤편에 울부짖던 대나무숲' 그늘에서 서성이고 있을 것이다.

- 이승철(시인, 한국문학평화포럼 사무총장)



e-mail: kimjongsuk2500@gmail.com

약력

- 1977년 캐나다 이민
- 캐나다 한국일보 신춘문예 입상(시 부문)
- 캐나다한인문인협회 회원
- 2014년 계간 '시현실' 여름호로 등단
- 한국기독교문인협회 회원

시집

- 2014년 「나는, 내 소리를 잃었네」 발간
- 2016년 「장미의 외출」 발간

